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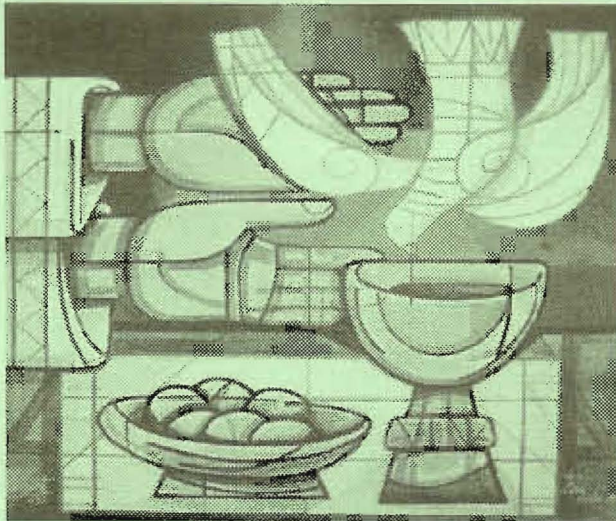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32권 36호(나해) 2012-8-5

[묵상]



영원한 생명의 빵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본 사람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모든 이가
올바른 이유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기한 기적들을 쫓아다니며,
과거의 만나를 그리워합니다.
저희들이 찾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길이 남을 영원한 것들,
당신을 깨닫게 할 표징들,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주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청하는 그 빵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생명의 빵인지,
저희의 욕심을 채우려는 빵은 아닌지.....

나는 지금 무슨 빵을 청하고 있습니까?
무슨 빵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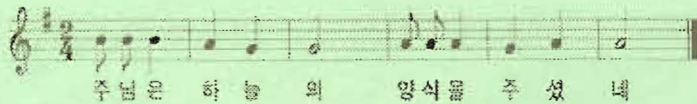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창민 시몬
특전미사	(생)김민중 안드레아, 곽수진 보나, 김은지 릴리안, 갈유현 미카엘, 김마루 미카엘, 이영호 사도요한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소창영 & 소준주, 김중환 야고보,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김경숙 마리아 & 강세황 루카, 한장치 요셉, 마리아고레티, 진병락, 찰리 가가미 (생)변혜경 올리비아, 윤선희 로사 & 신경희 클라라 & 정광미 프란치스카, 전하현 마리아, 김세민 리디아, 홍석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6,2-4.12-15

화답송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 들려주려 하노라.○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리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4,17.20-2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요한(John) 6,24-35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87	187	188
봉헌	257	257	261
성체	291	291	291
파견	245	245	19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신학 공부에 미치는 영향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라, 보편 교회의 친교 안에서 해석된 성경의 연구가 참으로 신학 연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인들과 성경 해석

48). 하느님의 말씀을 참으로 살았던 이들, 곧 성인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경의 해석은 불완전한 것으로 머물 것입니다. “선한 이들의 삶은 살아 있는 해석” (Viva lectio est vita bonorum.)입니다. 실상, 성경의 가장 깊이 있는 해석은 경청과 독서와 꾸준한 묵상으로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도록 내맡겼던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교회사에 자취를 남긴 위대한 영성들이 명시적으로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21)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여졌던 성 안토니오 아바스를 생각합니다.

대 바실리오 성인이「도덕론」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그에 못지않게 의미가 깊습니다. “신앙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말씀이 진리라는 데에 대한 충만하고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 신앙인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충만한 확신으로 성경 말씀의 의미에 따라 살며 감히 아무것도 삭제하거나 첨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그의「규칙서」에서 성경이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올바른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켈라노의 글에 따르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도 은도 돈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전 대도 빵도 여행을 위한 지팡이도 신발도 두 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듣고 (……) 성령 안에서 환호하며 즉시 외쳤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청합니다. 이것을 행하기를 온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아씨시의 클라라 성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체험을 온전히 공유했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의 생활 형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구스만의 도미니코 성인도 “어디에서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의 설교자 수사들 역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계속>

생명의 빵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물건 저 물건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물건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떼어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붙였습니다. 만 원짜리 상품에는 백만 원을 붙여놓고, 백만 원짜리는 만 원을 붙이는 등, 온통 뒤죽박죽으로 가격표를 바꿔 달아 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백화점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떠한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한 채 정신병자가 바꿔 놓은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갔습니다. 백만 원짜리를 만 원에 그리고 만 원짜리를 백만 원에...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진정 가치있는 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귀한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하고 계십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 몹시 해땁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진정한 이유, 즉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백화점에서 한 정신병자가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는 현대의 우리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

우리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기에 배고픔을 달래줄 육신의 음식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입니다.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육적인 음식은 잠시의 배고픔을 달래주지만 영적인 음식인 생명의 빵은 영원을 달래줍니다.

그렇다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요한 6,29)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제2독서의 에페소서 말씀에서처럼 헛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 안에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틸리안	신덕레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8월

◆ 봉성제 : 9일(목) 오전 10시부터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15일(수)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신앙 특강

- 주제 : "남자와 여자의 차이"
- 일시 : 오늘 주일(5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 노성기 루보 신부님(광주가톨릭대 총장 교부학박사)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배론 청년회 판드레이징

- 맛있는 왕만두와 왕전빵을 판매합니다.
- 일시 : 4일(토) 특전미사후(냉동상품)
8월5일(주일)미사후 냉동 및 친교자리 점심용
- 문의 : 청년회장 최태훈 아오스당 ☎(310) 508-2123

◆ 예비자 교리반 개설 및 신자 재교육

-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교우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예비자들과 함께 교리를 수강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환영식 : 2012년 9월2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기간 : 2012년 9월~2013년 3월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백삼위 골프 정기토너먼트

- 일시 : 8월11일(토) 오전 11시 티오프
- 장소 : 알론드라 골프코스
- 문의 : 유석영 레오 ☎(310)997-5388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2012년 첫 수혜자 발표

지난 1월 자녀들을 위해 뜻있는 의명의 교우가 봉헌한 장학기금으로 설립된 백삼위장학회(회장 이재정 사도요한)가 그동안 진지한 심사를 거쳐 11명의 첫 수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학업성적뿐만아니라 봉사활동을통해 가톨릭신자로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 축하합니다! ☺

- 운영위원 : 본당 신부님 포함 8명
- 선발된 후보자 11명 : 김서영(엘리아스), 김지수(보나), 박윤지(안나), 송병관(요한), 임정빈(보스코), 오수지(미카엘라), 유 존(요한), 윤채서린(카타리나), 정혜정(젬마), 한알렉스(라파엘), 한지혜(소피아) -가나다 순-
- 장학금 수여식 : 8월12일(주일) 낮미사후
축하식 : 오후 5시30분

◆ M.E.소식

- 본당 ME 8월 세어링 : 오늘 주일(5일) 오후 6시15분, 강당
- 남가주 ME 첫주말 신청(9월14일~16일 2박3일)
- 남가주 ME 30주년 책자발행 협조건 : 1차(1982년)~43차(1999년) 수장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수집
- 문의 :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율리아 ☎780-9055

◆ 레지오 마리아 미션 방문

- 일정 : 8월18일(토), 장소 :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 문의 : 꾸리아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홍보분과에서 각단체 임원연락처 정리, 자료 보내주세요.

- 대상 : 사목회, 각단체 임원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 보내곳 : 본당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본당 홈페이지(http://103skcc.org)의 알림게시판을 참조해주시시오. * 문의 : 안재만 다니엘 ☎(310)972-0239

◆ 성모회 모임 변경

- 일시 : 8월15일(수) 성모승천대축일 미사후
- 성모승천대축일 저녁미사후 '샌드위치 나눔' 있습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5일(주일) : 청년회(왕만두/전빵 \$청년회 기금모금)
- 8월12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비빔밥/콩나물국 \$3)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오상	김병조	김영경	김우용	김 욱
	김일선	김준호	김관구	모은기	문향엽	박기돈
	박선희	박완철	박종민	서성용	송호창	오희종
	육근주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이명자	이병우
	이상철	이석진	이영미	이인석	이현주	익 명
	임분필	장영진	조인순	최원석	한창주	황인중
	합계 : \$4,820					
미사헌금 : \$2,343						
성전헌금	고천용	권오상	김병조	김우용	김 욱	김준호
	김관구	모은기	문향엽	박기돈	박선희	박완철
	서성용	송호창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이명자
	이병우	이상철	이석진	이영미	이인석	이일길
	이현주	익 명	조인순	최원석	한창주	황인중
	합계 : \$3,160					
감사헌금 : 이영호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중입니다.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지순례 및 관광

- 순례일정 : 10월13일(토)~21일(주일) 8박9일
- 순례지 : 새남터, 절두산, 솔피, 공세리, 연양, 풍수원, 배론, 피아골, 연풍성지 등
- 관광지 : 설악산, 남해안, 경주, 청계천, 전주 등
- 문의 : 김예란 캐틀라인 ☎(714)2883-7540

에밀 카폰 신부(Fr. Emil Kapaun) 시복시성 진행중

미국 위치타 교구(캔사스주)는 1950년 한국 전쟁에 군종신부로 사목하다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선종하신 에밀 카폰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자료를 로마 교황청에 제출,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카폰 신부님의 성인추대를 위한 시복시성 기도문이 본당 사무실에 와있으니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시기를 위치타 교구는 바라고 있습니다.

남가주 소식

성 아그네스 성당 창립44주년 특별기획

- 주제 : 듣는 기쁨, 보는 즐거움
- 기념주일 및 미사 : 8월5일(주일) 오전 9시10분
- 기념식 : 8월5일(주일) 오전 10시30분 회관
- 기념강의 2 : 5일 낮 12시 “미사의 의미와 해설”
- 강사 : 최대제 신부(예수회)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8월12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데레사 365-2542 8/14(화) 반미사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석안젤라, 민안나 634-9631 8/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8/15(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배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8/11(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8/11(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8/8(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오창애 안나 974-2857	송기철 루카 974-2857 8/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8/7(화) 오전 10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8/21(화) 반미사 오후 7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8/11(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9(주일) 오전 10시 월슨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익혜 세실리아 541-0700 8/1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8/9(목) 오후 8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7(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404-206-2911 8/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낮미사 직후 강당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	--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친교 위해 헌신하겠다.”

염수정 대주교, 교황 집전 팔리움 수여 미사 참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사진·오른쪽)는 지난 6월29일 로마 현지시간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베네딕도 16세가 집전한 팔리움 수여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미사에서 염수정 대주교는 지난 1년간 임명된 각 국의 대주교 44명과 함께 교황에게 팔리움을 받았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제의에 착용하는 양털로 만든 띠로, 주교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고 교황청과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미사에 참석한 염 대주교는 “교황청과 일치하며 친교를 나눈다는 뜻을 가진 팔리움을 받았으니,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령 체험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마태 10,20) 우리는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에 힘입어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곳(요한 14,1-4 참조)으로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헤쳐 나가지 않아도 되며,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왔던 고통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쁨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원천을 지위, 권력, 쾌락, 그리고 재산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으며 우리를 고지식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실 것입

니다.(요한 17,14-16 참조) 하느님의 날개 그늘에 우리 몸을 숨길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시편 36,8 참조) 우리는 걱정 없이, 열렬한 헌신으로 이 모든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방의 체험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생활에 전환점이 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들어서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수록 우리는 점점 평안을 얻게 되고 긴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해왔지만 이제 이런 세상적 가치를 상대화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십니다.(1요한 4,10 참조)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한때 장애물로만 보였던 스트레스와 걱정을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5)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르래가 우물에서 무거운 물둥이를 끌어올리듯이, 예수님께서 걱정과 장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작은 목소리에 마음을 열면 열수록, 성령의 임하심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일상의 한가운데서 성령의 신비를 감지해내는 리더가 새 건전지로 재충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강렬한 묵상의 결과도, 황홀경이나 특별한 초자연적인 조명의 결과도 아닙니다. 만일 성령의 체험이 그토록 원대한 것이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직무들과 충돌을 빚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얹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초월적인 손길은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히 떠납니다. 이러한 체험은 행복을 찾도록 인도하며,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